

The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Attributes of Diffusion of Teacher Learning Communities¹⁾

Park, Young O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Student)

Lee, Jae Duck²⁾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how teachers, who are the subjective existences of educational reform, perceive the attributes of the diffusion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Achieved through qualitative meta-analysis used as a research method, and Rogers' diffusion theory employ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We find that the attributes of diffusion cover several aspects regarding teachers. First, in terms of relative advantage, it includes enhancing profession, satisfaction, and institutional benefit. Second, for compatibility, the attributes of diffusion show the sense of vocation, valuing education, and a culture of trust. Third, on the other hand, it includes misunderstandings, conflicts,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barriers related to the complexity. Fourth, with the trial-ability, diffusion attributes include trying in an accommodative atmosphere and a practical and specific idea. Finally, in terms of observable points, it includes checking performance through experiences, and indirect experience by sharing exam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pread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Key Words : Teacher learning community, qualitative meta-analysis, Rogers' innovation diffusion theory, diffusion of innovation

-
- 1)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022 Autumn Conference co-hosted by The Korean School Consulting Cen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 2) Corresponding Author: Lee, Jae Duck,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ung Tap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28173 / E-mail: jdlee@knu.ac.kr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¹⁾

박영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생)

이재덕²⁾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Rogers의 확산이론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대적 이익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높은 심리적 만족감, 제도적 이익 등이 나타났다. 둘째, 적합성 측면에서 직업적 소명의식, 교육적 가치 추구, 소통을 통한 신뢰의 문화 등이 나타났다. 셋째, 복잡성 측면에서 오해와 갈등, 물리적·심리적 장벽 등이 나타났다. 넷째, 시험 가능성 측면에서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시도하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이 나타났다. 다섯째, 관찰 가능성 측면에서 직접 경험을 통한 성과 확인, 사례 공유를 통한 간접 경험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양적 확산뿐만 아니라 질적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교사학습공동체, 질적 메타분석, Rogers 확산이론, 개혁의 확산

1) 본 논문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추계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2) 교신저자: 이재덕, 교수,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 E-mail: jdlee@knue.ac.kr

논문투고일자: 2022. 8. 15 / 심사일자: 2022. 8. 18 / 게재확정일자: 2022. 9. 19

I. 서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교육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교육개혁은 양적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웠다. 상급 기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 방식은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외면하며 교수실천에도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습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Seo, 2009). 또한 학교 효과성 연구나 교사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Kim et al., 2016). 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던 교육개혁이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전통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컨설팅, 수업코칭, 교사학습공동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연구회, 교사 연구회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보다 체계화된 교사 협력의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Chung, 2020). 그야말로 교사학습공동체는 상향식의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Seo, 2008; Sergiovanni & Starratt, 2007).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효능감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Lee & Park, 2021).

이렇듯 초기에 자생적으로 실천되었던 교사학습공동체는 여러 연구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힘입어 2015년을 기점으로 시·도 교육청 주도의 학점 인정, 연수과정 개설 등의 정책으로 확장되었다(Choi & Park, 2019).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8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학교 참여율은 정책의 도입 첫해인 2015년 대비 20.1% 상승하였으며, 교원 참여율은 8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9). 부산광역시교육청도 2015년 이후 매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9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9).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모든 초중등학교가 필수 사업으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Oh et al., 2016).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도 교육청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를 확산하는 듯 정책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표면적으로 양적 확산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확산은 관주도의 하향식의 정책 추진의 결과로 정책이 중단되면 언제든 멈추는 확산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된 확산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실질적 확산세는 교사들에 의해 더욱 상승할 수도 혹은 하강할 수도 있다.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개인인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참여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개혁을 채택하고자 하는 교사가 개혁의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 Park, 2021).

이에 본 연구는 Rogers(2003)의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을 활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주체인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확산이론은 개인이 개혁을 채택하는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Knezek & Christense, 2008, as cited in Kim & Lee, 2020). 이에 따르면 개혁의 확산이란 다수의 개인에 의해 어떠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느껴져 채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속성을 상대적 이익,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한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질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지금껏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o et al., 2017)는 점에 착안하여, 질적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명료화할 수 있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에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과 참여요인(Kim & Won, 2020; Lee et al., 2015), 혁신학교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발달(Park, 2018), 교사의 학습 양상(Chang et al., 2021), 교사의 참여와 실천방식의 비교 분석(Lee & Kim, 2020)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 온 사례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시행했으며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화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물들은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의 적용이나 정책 반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질적 메타분석은 종합적인 분석으로 보다 확장적인 이해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a, 2008a).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사례연구를 종합하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라는 개혁을 확산시키려는 시도에 있어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교사학습공동체가 자연스러운 질적 확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한 공동체 내에서의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도모하고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향식 학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써 학교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 혹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현직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지만, 교사학습공동체는 이와 상반되는 관점을 갖는다. Sergiovanni & Starratt (2007)는 지식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학습자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교사 연수가 안고 있는 형식적이고 탈맥락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사학습공동체이다(Seo, 2009).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Sergiovanni & Starratt(2007)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한 교사들 간의 협력적 실천집단으로 정의하며,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 실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실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적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Song & Choi(2010)는 교수-학습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 성취를 높이기 위한 학교조직 전체로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Seo(2015)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 탐구 및 협력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교사들이 목적, 가치,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탐구공동체(inquiry community), 배움의 공동체,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등 다양한 모습과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Seo, 2015).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정책에서 사용된 용어도 다양한데, 전문적학습공동체(경기, 인천,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경남)를 비롯하여 교원학습공동체(서울), 교사공동체(제주)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공동체 지향성의 측면에서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 거의 차이가 없이 그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목적, 가

치,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학습공동체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여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가 수업 혁신(Yoon, 2016), 학교문화 개선(Lee & Lee, 2015), 학교변화(Park et al., 2015), 학교혁신(Chung & Kim, 2018), 교육개혁과 학교교육력 제고(Lee & Lee, 2015)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육의 개혁에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가 전문성 개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학교 개혁의 성공에 핵심 요소임을 밝힌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Seo, 2015).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 힘입어 관련 정책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학습공동체를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하고, 함께 실천하며, 교육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정의(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5, February 23)하며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점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육부 차원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Chung & Kim, 2018).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모든 초·중등학교가 필수 사업으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으며(Oh et al., 2016), 충북, 인천, 세종교육청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책을 추진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Kim et al., 2016). 이후 교사학습공동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추진되었다.

이처럼 생성초기에 상향식 개혁의 흐름을 지니고 있던 교사학습공동체는 상급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가 급증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의도된 정책이 오히려 교사를 소외시키고 실천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Lee & Kim, 2020)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화를 통한 확산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의 개념 및 요소

Rogers(2003)의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은 교육, 행정학, 공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혁신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혁신의 수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인식·수용하며, 혁신이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되고 있다(Knezek & Christense, 2008, as cited in Kim & Lee,

2020).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개혁의 확산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롭다고 느끼는 아이디어가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채택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as cited in Kim & Lee, 2020, p. 154). 특히 개인은 개혁의 객관적인 특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개혁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이 이를 새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개혁이 되는 것이다. 개인은 개혁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개혁을 채택하기도 혹은 거부하기도 한다. Rogers(2003)는 이러한 개인의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속성으로 상대적 이익,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각 속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은 과거의 아이디어에 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좋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 개혁을 채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인식하면 개혁의 채택이 일어난다. 이때 개인이 인식하는 이익에는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인 것도 포함된다. (2) 적합성(compatibility)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인의 가치나 규범, 과거의 경험, 필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개혁은 확산이 어렵다. (3) 복잡성(complexity)은 개혁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복잡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어 복잡성이 낮을수록 확산에 용이하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해가 쉬울수록 더 빠르게 채택된다. (4) 시험 가능성(trialability)은 개혁을 채택하기 전 제한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개인은 시험을 통해 개혁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개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가능한 개혁은 더 빨리 채택된다. 마지막으로 (5)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은 개혁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그 성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주변인들과 개혁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결국 개혁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Rogers, 2003).

개인의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확산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Rogers의 확산이론을 중요한 개념적 틀로 활용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확산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주로 e-러닝(Cho & Cho, 2012; Kim et al., 2018), 플립드 러닝(Eom et al., 2017), 블렌디드 러닝(Lee et al., 2014)과 같은 새로운 교수 방법과 참신한 기술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수 방법과 기술의 실제 활용자인 교사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어떻게 인식하여 수용하고 채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확산이론을 적용하여 혁신학교(Kwon et al., 2016), 과정중심평가(Kim & Park, 2021)와 같은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의 수용도를 탐색하기도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Kwon et al.(2016)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여 개혁으로서 혁신학교의 적합성을 연구하였으며 Kim & Park(2021)은 개혁의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주도자와 비전을 공유한 구성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확산이론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무엇을 개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개혁을 받아들이는 구성원 개인이 개혁을 어떻게 인식하여 수용하고 채택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일지라 하더라도 구성원인 개인에 의해 새롭게 느껴지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는다면 확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학습공동체 역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 할지라도 이를 채택하는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확산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즉,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의 측면에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Kim & Park,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gers의 확산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채택과 참여 과정에서 교사가 어떠한 속성을 인식하는지 분석하고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analysis)은 메타분석의 한 유형으로 비슷한 주제의 개별 질적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질적 연구와 그 목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15).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 특정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Na, 2008b). 이러한 질적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고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이해를 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절차 및 대상

국내에서 실시된 질적 메타분석에 의한 연구들은 대체로 Noblit & Hare(1998)에 의해 제안된 7가지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 절차는 연구 주제 설정,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물 결정, 연구물 분석, 연구물 간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물에 대한 해석, 해석한 결과의 종합, 결과물의 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참고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실행 과정

실행 단계	실행 내용
연구 주제 및 연구문제 설정	연구 주제를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으로 설정
관련 연구물 검색	‘교사학습공동체’, ‘교사 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연구회’ 등의 키워드로 연구물 검색
포함과 배제 준거 설정	포함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발달, 교사 참여 및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배제 관련 주제 외 연구물, 양적 연구 및 문헌연구, 특정영역(독서교육, STEAM, 학습효과) 관련 연구물
포함된 연구물에 대한 질적 평가	연구물을 읽고 진술문 및 사례에 대한 서술적 묘사 확인
개별 연구물 분석	분석기준 마련 및 내용 분류, 선택적 코딩을 통한 의미 단위 및 개념 도출
연구 결과 종합 해석	분석 결과 정리 및 해석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진술하였듯이 개혁의 확산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성원 개인이 개혁을 어떻게 인식하여 채택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에 관련되거나 교사의 참여 경험을 다루고 있는 연구물로 설정하였다.

연구물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추진된 2015년 이후의 확산 양상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교사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 연구회’ 등을 검색 키워드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이상의 국내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연구물의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주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이어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 동향,

교사 리더십, 혁신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물은 제외하였으며 이때 연구물의 제목만으로도 양적연구, 문헌연구, 중복연구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외하여 총 79편의 문헌을 1차로 선정하였다.

2차 검토 과정에서는 연구물을 읽으며 특정 영역(독서교육, STEAM, 학습효과 등)을 다룬 연구물을 제외하고, 자료 해석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Na, 2008b) 진술문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물은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문헌은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기에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경험적 사례에 대한 서술적 묘사가 풍부하지 못한 연구물은 배제하였다(Na, 2008b).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연구 대상 문헌은 총 13편이다. 질적메타분석을 위해 필요한 문헌수는 2~20편이 적절하다(Noblit & Hare, 1988, as cited in Park, 2018)는 문헌에 따라 선정된 연구대상 문헌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문헌 목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문헌 목록

#	연도	저자	제목	학술지
1	2021	Kwak et al.	과학 교사 학습공동체 특성에 대한 질적 탐구-학교 안과 학교 밖 공동체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	2021	S. H. Kim & J. L. Park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사례연구-교육연구회 ‘반걸음’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	2021	Park & Lee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4	2021	Lee & Park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5	2021	Han & Kim	정책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교사의 경험과 성찰	교원교육
6	2019	Cho et al.	단위학교 교사공동체의 실행공동체 특성 및 참여의 기제	교원교육
7	2017	Kim & Kim	중학교 내 자생적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8	2017	Yoon et al.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양상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9	2017	Yun et al.	하늘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10	2016	Kim et al.	교사들의 ‘반(半) 자발성’ 에서 출발한 학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11	2019	Oh et al.	초등학교 내 교사 주도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장 주도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 비교 연구	교원교육
12	2015	Park et al.	내부로부터의 학교 변화-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13	2015	Cha et al.	과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초등교사의 PCK 변화 과정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확산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속성인 상대적 이익,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으로 분석 틀을 만들었다. 둘째, 개별 연구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으며 분석 틀에 적합한 내용으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셋째, 각 요인에 해당하는 진술문에서 의미 단위를 추출하여 도출된 의미 단위에 대해 여러 차례 비교 및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단위들을 묶어 포괄하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IV. 연구결과

Rogers가 제시한 개혁의 속성을 분석틀로 설정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13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속성인 상대적 이익,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의 순서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대적 이익

가. 교사 전문성 신장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업의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교육활동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관점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얻음으로 교육적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며 배움과 성장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핵심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목적이 그거잖아요.(#2, 김여름 교사)
- 참여하면서 다양한 관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3, 교사 K)
- 본질적인 자기계발이 아닐까.(#4, 연구참여자5)
-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돼서 좀 자란 것 같아요.(#5, D교사)
- 트레이닝이 돼요...많이 배우고.(#6, 교사A)
- 신규 교사로서 수업과 관련된 것을 많이 얻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8, 조 교사)

나. 심리적 만족감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함으로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직 생활과 새로운 도전에 느꼈던 두려움을 해소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서로 다독이며 힘이 되어주는 등 위로를 받거나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

-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수업이 덜 두렵고 처음 생각보다 편했다고 하더라.(#1, A중점교)
-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랄까...거기서 자신감이나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 그런 게.(#6, 교사A)
- 서로 상처를 얘기하고...치유 받고 이런 과정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7, A교사)
- 다독겨려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모임에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다.(#1, 학교밖C)

교사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활동 결과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취감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게 해주었다.

- 성취감을 조금 느끼게 된 것 같다.(#1, D중점교)
- 생각하는 과정에서 희열도 느끼고... 내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할까.(#4, 연구참여자7)
-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요.(#5, C교사)
- 잘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 나니 거기에 따라가려고...(#6, 교사A)
- 내가 잘하고 있다는 판단에 희열을 느끼기도...(#11, 임유미 교사)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만족감은 교직생활의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귀결되었다.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배우며 공유하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며 이러한 즐거움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행복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 연구를 하다 보니 즐거워졌어요.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날엔 너무 행복해서(#4, 연구참여자4)
- 같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더라고요.(#5, D교사)
- 그러면 올해는 나도 좀 학교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하게 된 거였어요. (#9, A교사)

다. 제도적 이익

연수 학점화 제도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연수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교사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인식되었다. 교사들은 원래 상시 교류하고 있던 모임이어서 제도적인 이점이 없어도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정 시간 연수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교사들에게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 작년부터 이렇게 교원학습공동체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연수 시간으로 교육청에서 인정해주기...그러면 어차피 우리 모여서 하는 거 원래 상시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아라고 해서 모였다.(#1, D중점교)
- 저희는 3개 연구회를 하는데 전문학습공동체는 1년짜리로 30시간 연수 이수 시간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선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1, G중점교)

2. 적합성

가. 직업적 소명의식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는 개인적 경험과 필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책임감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 학습의 책무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가 교사로서의 직업적 소명 의식에 적합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사명감도...(#3, 교사)
- 저는...책임감이 좀 더 큰 거 같아요.(#8, 흥 교사)
- 올해 학습공동체도 하면서 (중략)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9, B교사)
- 아무래도 학생 학습에 대한 책무성 때문에 [공동체로] 모인다.(#1, F중점교)

나. 교육적 가치 추구

또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존재했는데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추구한다거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 학생들의 성장을 분명히 도울 것이다.(#1, 학교밖C)
- 아이들의 반응이...정말 성취를 이룰 때가 많았어요.(#5, C교사)
- 학생들이...뭔가 교육적인 작용이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애들이 변화된 거 아닐까!(#6, 교사A)
- 자기 철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거 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다르다.(#7, A교사)

다. 신뢰의 문화

교사들은 교직 생활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교사와 소통하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원활한 소통은 일방적이고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식 연수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던 것과는 다르게, 교사들에게 전수받는 느낌이 아닌 대등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게 된 거라고...(#1,D중점교)
- 제가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6, 교사B)
- 수업과 관련된 소통, 공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6, 교사C)
- 소통을 더 증진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10, 이보영 교사)

교사들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가 추구하는 교사학습과 전문성 향상의 방식이 소통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사들이 추구하는 교직 생활의 열망과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2, 유혁신 교사)
- 구성원 간 믿음과 신뢰감은 학습의 창의성을 일으키는 기반이 돼요.(#2, 김통찰 교사)
-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업이나 일을 해내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높다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6, 교사B)

-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걸 아니잖아요. 신뢰를 되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신뢰를 서로서로 많이 하는.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 않고요.(#11, 방은희 교사)

3. 복잡성

가. 오해와 갈등

교사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로 인한 자발적인 노력은 동료 교사들에게 소위 ‘튀는’ 행동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교사는 관리자와 상급자와의 갈등을 겪으며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노력을 단념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였다.

- “왜 그만 것까지 알고 싶어 하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2, 권지혜 교사)
- 노력은 안 해봤지만 해봐야 소용이 없고 괜히 잘못 나대면 찍히고 일만 잔뜩 하고. 그 일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6, 교사E)
- 튀지 말라고 하니깐 이거 해도 되나 걱정이 되고 몰래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9, A교사)

나. 물리적·심리적 장벽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 안에서 그 활동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공간적 어려움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모임 공간을 섭외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교사들의 생활권과 모임 장소가 너무 먼 경우에는 참여를 원하지만 포기하기도 하였다.

- 시간을 확보해주겠다고 했지만...행사 진행이 매우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1, D중점교)
-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모임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교에서도 외부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1, 학교밖B)
- 일정 짜기가 쉽지 않죠. (중략)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그 친구는 몇 번 문을 두드렸다가 포기했죠.(#8, 최 교사)

교사학습공동체에 새롭게 참여하는 교사들은 새로운 환경과 대인관계에 적응 과정에서 어색함과 낯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의 호기심과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

미 기존 구성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된 이후, 새로운 참여자가 아무리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더라도 쉽게 융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 자발성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략) 호기심을 가지고 의욕을 갖고 왔다가 이 조직에 잘 이렇게 융화되지 못해서...(#8, 정교사)
-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하고 어려웠어요.(#8, 조 교사)

4. 시험 가능성

가.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시도하기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에 대해 쉽게 도전하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시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실천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전의 진입장벽을 낮춰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교사들은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 강요도 안하고 ...부담 없이 따라가기만 해도...(#5, F교사)
- 우선 제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아요. 선생님들이 허용적으로 제 의견을 다 받아주시거든요.(#3, 교사J)
- 그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6, 교사E)
- 용기 내서 한마디를 꺼냈을 때 옆에서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6, 교사B)
-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8, 최 교사)

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교사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이나 수업에 대한 배움은 당장 내일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기법에서부터 철학적 가치를 논하는 깊은 수준까지 다양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겠으나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교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에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일으킨다.

- 바로 다음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3, 교사G)
-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딱 주시니까.(#3, 교사F)
- 실제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걸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갈망이...(#7, G교사)
- 공동체는 배운 것을 바로 활동으로 써먹을 수 있고...(#8, 흥 교사)
- 수업 얘기할 때... 정말 제가 원했던 것들이거든요.(#8, 조 교사)
- 수업에서 바로 적용해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직접 체험해 보고 적용해 보고...(#8, 흥 교사)
- 책 읽고 실천이 뒤따르는...(#11, 현명혜 교사)

5. 관찰 가능성

가. 직접 경험을 통한 성과 확인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학습자의 긍정적 반응과 수업 성공에 대한 경험 같은 직접 경험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성과를 확인했다. 교사들이 그 성과를 눈으로 보기 쉬우면 쉬울수록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 과학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느냐고 질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1, B중점교)
-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들...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좋았다고...(#1, 학교밖C)
-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수업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5, A교사)
-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반응 좋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8, 최교사)

특이한 점은 수업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을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두고 있다는 것과 그 결과 교사 자신의 감정 또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를 관찰할 가능성이 교사의 상대적 이익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성공했던 경험이 많아서인지 더욱더 실천해 보려는 마음이 생겨요.(#3, 교사 H)
-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다음 모임이 기다려 지더라고요.(#3, 교사G)
-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웬지 잘 하는 것도 같고 저도 재미있었어요.(#5, F 교사)
-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봐야지 싶은 수업도 많았고, 수업 반응이 좋으면 정말 기쁜 것 같아요.(#5, D교사)

나. 사례 공유를 통한 간접 경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활동에서 직접적 경험뿐만 아니라 동료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과에 대한 결과 확인이 쉬울수록 주변 동료들과의 논의를 자극하게 되며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게 된다.

- 지식은 하나지만,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경험이 수만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3, 교사 I)
-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3, 교사 G)
- 타인의 수업을 바라보면서 제 수업을 성찰할 수도 있는 거고...(#7, F교사)
- 옆에 있는 선생님은 어떻게 더 새로운 수업을 하나? 궁금해지기도 하고...(#6, 교사E)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던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게 모델링이나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실제로 2, 3년 지나면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옆에서 보고 나서...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되냐고 하는 분들도 생긴다.(#1, A중점교)
- 000선생님도 직접 보시고 나서 저도 한 번 그분한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7, E교사)
- 매일매일 연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기 수업에 대해 연구하는 역량, 전문성, 행정업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멋있고 그런 신뢰감과 존경심 같은 것들이 컸던 거 같아요.(#7, F교사)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학습공동체가 정책 추진에 의한 양적 팽창을 이룬 상황 속에서 그 이면에 가려진 확산의 속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교사학습공동체를 교육 개혁으로 간주하고 Rogers(2003)의 확산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이익 측면에서 교사들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연수 시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이익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 전문가로서 자신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교사들에게는 분명 핵심적 이익이었다. 교사들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도 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감과 교사효능감이 향상되어 교직생활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과 제도적 이익에만 유익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위로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 이점을 느낀다는 점이다(Rogers, 2003). 지금껏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책적 확산은 교사전문성 신장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학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경향이 있으며 연수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투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학습공동체 확산을 교육조직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서만 추진하다 보면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강제된 협력과 피상적 실천으로 왜곡될 수 있다(Chung, 2020). 교사학습공동체는 단순히 조직의 목표 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추구하기에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사회적 관계의 충만감을 느낀다. Kim et al.(2018)에 따르면 이러한 교사협력에서 교사의 사회심리적 안정감이 교사효능감과 교직만족도로 연결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동안 겪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적합성 측면에서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직업적 소명 의식과 교육적 가치, 소통하는 교직 문화를 추구했다. 교사들은 학생 학습의 책무성과 사명감, 책임감과 같은 소명 의식에 의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으며,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는 학생 중심의 수업과 진정한 배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교육적 가치 추구에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얼마나 부합하는 활동인가에 따라 교사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 내의 소통하는 문화를 발견하고 이것이 교직 사회 내의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사 개인이 여기는 가치와 비전이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조직의 것과 일치될 때, 혹은 교사들이 스스로 교사학습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하고 설정할 때 교사학습공동체에 기여 참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구물인 Yoon et al.(2017)의 연구에서 한 연구참여자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관련하여 Oh et al.(2016)의 교사 주도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장 주도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교장 주도의 ‘주어진 목표’ 보다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합의된 목표’가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냈으며, 3명의 교사가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공유하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5개월이라는 시간은 학교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에 있어 교사들의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에 의해 교사학습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주어진 목표’가 아닌 ‘합의된 목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와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생성된 형식적 합의가 아닌 진정한 합의를 기다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학년도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일회적 비전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

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비전이 공유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복잡성 측면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물리적·심리적 장벽 요인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요인은 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변화를 갈망하는 교사는 관리자 및 동료들과 견해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노력을 단념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였다. 또한 물리적 장벽에는 시간 및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심리적 장벽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복잡성을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연수로 인정해 주며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9;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21;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9). 그러나 이러한 공문이나 정책자료와 같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구성원의 설득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Hoy & Miskel, 2013). 또한 교사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교사가 인식하는 복잡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가 내실 있는 확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천을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친화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시험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은 수용적 분위기에서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였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접할수록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해 확신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가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은 도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교사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확신을 얻어가는 것이다.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향식 지시나 감독에 의한 개혁추진은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사들의 시도를 제한하고, 교사들에게 개혁의 주체라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수동적인 존재로 느끼게 하여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Oh, 2014). Rogers(2003)에 의하면 개혁의 채택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개혁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활발히 참여한다. 즉 교사들이 스스로 교사학습공동체에 변화를 주고 재구성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할 때 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의 시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관찰 가능성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경험은 학습자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수업에 대한 관찰 가능한 경험이었으며, 간접적인 경험은 동료의 수업을 관찰하거나 사례 공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응으로부터 교사들은 보람과 만족감을 얻으며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다

시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관찰 가능성은 다시 상대적 이점과 적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순환되어 개혁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공 경험에 대해 관찰이 가능할수록 주변 동료들과의 논의를 자극하고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공유하게 되어 참여를 지속하였다.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사례 공유를 넘어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 다른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교사는 고립주의적인 교직 문화를 극복하고 자신의 교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유의미한 교사 협력을 실천한다(Seo, 2019). 즉,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교사들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며 교사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긍정적 성공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여 관찰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산이론을 활용하여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Rogers(2003)가 확산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개혁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혁의 속성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사회체계 등이 있다. 각 차원은 교육개혁의 동력인 교사 개인 역시 교육조직이라는 사회체계 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교사 및 다양한 외부 조직과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차원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확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후속 연구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9). *Policy manual for School-base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2020*.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5000197&dataSid=5718267&menuCd=DOM_000000510011001000 국문: 부산광역시교육청(2019). **2020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자료집**. 부산광역시교육청.
- Cha, G. H., Ju, E. J., & Jang, S. H. (2015). The change process of elementary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 191-213. 국문: 차가현, 주은정, 장신호(2015). 과학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초등교사의 PCK 변화 과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191-213.
- Chang, Y. W., So, K. H., & Park, J. A. (2021). The qualitative meta analysis on the patterns of teacher learning in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8*(2), 53-82. <http://dx.doi.org/10.24211/tjkte.2021.38.2.53> 국문: 장연우, 소경희, 박지애(2021).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학습 양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8*(2), 53-82.
- Cho, S. Y., & Cho, K. R. (2012). A study on the diffusion and adoption of e-learning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Based on Rogers' theory of diffusion of inno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8*(2), 409-438. 국문: 조소영, 조규락(2012). Rogers의 혁신의 확산이론에 기반한 초등학교 교사의 e-러닝 확산과 채택. **교육공학연구**, *28*(2), 409-438.
- Cho, H. M., Kim, J. H., Na, J. Y., & Kim, Y. J. (2019). Factors of participation and characteristics for community of practice in a school.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3), 203-248. <https://doi.org/10.14333/KJTE.2019.35.3.203> 국문: 조형미, 김진희, 나지연, 김유정(2019). 단위 학교 교사공동체의 실행공동체 특성 및 참여의 기제. **교원교육**, *35*(3), 203-248.
- Choi, M. S., & Park, S. J. (2019). An analysis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olicies of local education authority: Focused on annual plan of local education authority in 20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2), 1077-1097.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2.1077> 국문: 최민석, 박수정(2019). 시·도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책 실태 분석: 2019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1077-1097.
- Chung, B. (2020). Institutional change an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PLC): A case

- study on district policy of PLC with institutional change perspective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175-192. <http://dx.doi.org/10.34226/gcl.2020.10.1.175>
- ☞ 국문: 정바울(2020). 제도변화와 전문적학습공동체: 제도변화 관점을 활용한 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책 사례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175-192.
- Chung, B., & Kim, Y. W.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s micro-mobilization for school innov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5(2), 27-53. ☞ 국문: 정바울, 김용우(2018). 학교 혁신의 미시동원으로서 하늘별초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인문학 연구 동아리’ 사례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5(2), 27-53.
- Eom, W. Y., Lee, H. M., & Lee, S. A. (2017). Analysis on the Intention of acceptance and practical use in flipped learning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3(3), 549-578. <http://dx.doi.org/10.15833/KAFEIAM.23.3.549> ☞ 국문: 엄우용, 이희명, 이성아(2017). 초등학교원이 지각하는 플립드러닝 수용 및 활용의도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3), 549-578.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5, February 23). *Grants credits for training activities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schools*.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59&bbsMasterId=BBSMSTR_00000000163&menuInit=2,2,0,0&bbsId=272832 ☞ 국문: 경기도교육청. (2015.2.23).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연수 학점 부여**. 보도자료.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9). *Policy manual for school-base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201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78009&bbsMasterId=BBSMSTR_00000000126&pageIndex=1&schKey=TITLE&schVal= ☞ 국문: 경기도교육청(2019). **2019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이해자료**. 경기도교육청.
-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21). *How do we operate teaching innovatio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workroom&menuCd=DOM_000000105022000000&contentsSid=216&dataSid=1449888 ☞ 국문: 경상남도교육청(2021).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어떻게 운영할까요?**. 경상남도교육청.
- Han, H. S., & Kim, M. S. (2021). Teacher learning community involuntarily organized by policy: Teacher experience and reflec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4), 295-320. <https://doi.org/10.14333/KJTE.2021.37.4.15> ☞ 국문: 한현숙, 김미숙(2021). 정책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교사의 경험과 성찰. *교원교육*, 37(4), 295-320.

- Hoy, W. K., & Miskel, C. G. (2013).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cGraw-Hill.
- Kim, H. J., & Won, H. H. (2020). The qualitative meta-analysis of attributes and participation factors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7(3), 109-134. <http://dx.doi.org/10.24211/tjkte.2020.37.3.109> ☞ 국문: 김하정, 원효현 (2020).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 및 참여요인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109-134.
- Kim, H. S., Chi, F., Zheng, X., & Yum, S. C. (2018). Development of inventories of teachers' adoption and diffusion of e-learning polic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4(1), 23-52. <http://dx.doi.org/10.15833/KAFEIAM.24.1.023> ☞ 국문: 김희수, Chi Fushu, Zheng Xiaoli, 엄시창(2018).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에 기초한 교사의 e-러닝 정책 수용·확산 검사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1), 23-52.
- Kim, J. H., & Lee, S. S.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determinants of teachers' design thinking based on diffusion of innovatio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153-173. <http://dx.doi.org/10.34226/gcl.2020.10.1.153> ☞ 국문: 김진희, 이상숙(2020). 교사의 디자인사고 확산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혁신확산이론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1), 153-173.
- Kim, J. H., & Park, S. Y. (2021). Exploring the diffusion factors of process-fortified assessment in schools: Based on Rogers' innovation diffusion the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9(2), 247-277. <http://dx.doi.org/10.22553/keas.2021.39.2.247> ☞ 국문: 김진희, 박소영(2021). 과정중심평가의 학교조직 내 확산요인 탐색: Rogers의 확산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9(2), 247-277.
- Kim, J. S., & Kim, D. K. (2017). A cas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pontaneous teacher's learning community in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1), 411-439. ☞ 국문: 김지선, 김도기(2017). 중학교 내 자생적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5(1), 411-439.
- Kim, J. Y., Jang, J. H., & Park, I. W. (2018). Teacher co-operation, activities to improve classes,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tion in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7(1), 1-15. <http://dx.doi.org/10.15812/ter.57.1.201803.1> ☞ 국문: 김주영, 장재홍, 박인우(2018).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정도, 수업개선활동, 교사효능감, 교직원만족도 비교분석. **교사교육연구**, 57(1), 1-15.
- Kim, M. J., Shim, Y. T., Kim, N. G., & Kim, J. W. (2016). A case study on two elementary schools wher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PLC) half-voluntarily began. *The*

-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4), 223-248. ㉞ 국문: 김민조, 심영택, 김남균, 김종원(2016). 교사들의 ‘반(半) 자발성’ 에서 출발한 학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223-248.
- Kim, S. H., & Park, J. L. (2021). A case study on out-of-school teacher learning community: A case study on the ‘halfSteps’ of the educational research counci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5), 617-63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5.617> ㉞ 국문: 김신희, 박종률(2021).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사례연구: 교육연구회 ‘반걸음’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617-634.
- Knezek, G., & Christensen, R. (2008).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ttitudes and competenci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J. Voogt & G. Kneze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ection4: IT competencies and attitudes* (pp. 321-332). Springer.
- Ko, Y. J., Kim, Y. J., Lee, H. J., & Lim, K. Y. (2017). Research trends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in Korea: A thematic analysis of Korean journal publication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4), 429-457.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4.429> ㉞ 국문: 고연주, 김영주, 이현주, 임규연(2017).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 주제분석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429-457.
- Kwak, Y. S., Lee, K. Y., & Jeong, E. Y. (2021). Qualitative inquiry into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Cases within and across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41(4), 297-310. <http://dx.doi.org/10.14697/jkase.2021.41.4.297> ㉞ 국문: 광영순, 이기영, 정은영(2021). 과학교사 학습공동체 특성에 대한 질적 탐구: 학교 안과 학교 밖 공동체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4), 297-310.
- Kwon, S. J., Yoo, S. S., Kim, J. A., & Yoo, J. Y. (2016). Exploring the meaning of diffusion of innovative schools based on theory of diffusion: Qualitative case study on innovative schools in S city in Gyeonggi province.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3(2), 153-180. ㉞ 국문: 권순정, 유성상, 김진아, 유주영(2016). 확산이론(Theory of diffusion) 에 근거한 혁신학교 확산 의미 탐색: 경기도 S시 혁신학교 질적 사례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3(2), 153-180.
- Lee, J. H., & Lee, K. H. (2015).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innovation school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8(2), 1-29. ㉞ 국문: 이준희, 이경호(2015). 전문가 학습공동체 구현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2), 1-29.
- Lee, K. S., Moon, D. Y., & Han, S. Y. (2014). Teachers’ perception affecting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blended learning. *Research Institute of Curriculum & Instruction*, 18(4),

- 1347-1381. ㉮ 국문: 이경순, 문대영, 한승연(2014). 혁신의 확산이론을 통해 본 블렌디드러닝의 수용과 채택. *교과교육학연구*, 18(4), 1347-1381.
- Lee, S. H., Lee, J. H., Heo, S. Y., Park, S. J., Han, S. Y., & Han, E. J. (2015). The qualitative meta analysis of attributes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4), 77-101. ㉮ 국문: 이승호, 이지혜, 허소윤, 박세준, 한송이, 한은정(2015).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 *교육학연구*, 53(4), 77-101.
- Lee, S. M., & Kim, K. S. (2020).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n teachers'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1), 143-177. <http://dx.doi.org/10.32465/ksocio.2020.30.1.006> ㉮ 국문: 이수민, 김경식(2020).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1), 143-177.
- Lee, S. Y., & Park, K. A.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ing in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8(2), 299-328. ㉮ 국문: 이수연, 박경애(2021).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8(2), 299-328.
- Na, J. H. (2008a). Qualitative meta-synthesis on training and workplace experi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of applying qualitative meta-synthesis. *Disability & Employment*, 18(2), 135-158. ㉮ 국문: 나장함(2008a).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Na, J. H. (2008b). Qualitative meta-synthesis for curriculum studies: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4), 229-252. ㉮ 국문: 나장함(2008b).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6(4), 229-252.
- Noblit, G., & Hare, R.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Sage Publications.
- Oh, C. S. (2014). *Case study on innovation diffusion process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국문: 오찬숙(2014). *교사학습공동체의 개혁확산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Oh, J. Y., Choi, J. Y., & Kim, Y. K. (2016). A comparative case study on a teacher-le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nd a principal-le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8(2), 213-242. <http://dx.doi.org/10.14333/KJTE.2016.32.2.213> ㉮ 국문: 오지연, 최진영, 김여경(2016). 초등학교 내 교사 주도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장 주도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 비교 연구. *교원교육*, 32(2), 213-242.

- Park, J. P., & Lee, S. J. (2021). A study on teachers' experiences in an out-of-school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7(4), 1-26. <http://dx.doi.org/10.29318/KER.27.4.1> ☞ 국문: 박종필, 이세정(2021).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7(4), 1-26.
- Park, N. S., Chang, Y. W., & So, K. H. (2015). School change from within: A case study of a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4), 91-114. ☞ 국문: 박나실, 장연우, 소경희(2015). 내부로부터의 학교 변화: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3(4), 91-114.
- Park, S. W. (2018). A study on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in innovative schools: A qualitative meta synthesi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5(4), 109-138. ☞ 국문: 박상완(2018). 혁신학교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육**, 45(4), 109-138.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Free Press.
- Seo, K. H. (2008). A case study on out-of-school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5(2), 53-80. ☞ 국문: 서경혜(2008).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53-80.
- Seo, K. H. (2009).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243-276. ☞ 국문: 서경혜(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 Seo, K. H. (2015). *Teacher learning community*. Hakjisa. ☞ 국문: 서경혜(2015). **교사학습공동체**. 학지사.
- Seo, K. H. (2019). The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movement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5(2), 53-80. <http://dx.doi.org/10.15854/jes.2019.6.50.2.1> ☞ 국문: 서경혜(2019). 학교단위 교사학습공동체 운동의 의의와 과제. **교육과학연구**, 50(2), 1-28.
- Sergiovanni, T. J., & Starratt, R. J. (2007). *Supervision: A redefinition*. McGraw-Hill.
- Song, K. O., & Choi, J. Y. (2010). Measurement model and the level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1), 179-201. ☞ 국문: 송경오, 최진영(2010). 초·중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의 측정모형 및 수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179-201.
- Yoon, K. J., Jeon, S. M., & Jung, H. S. (2017). A study of explor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of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5), 624-634. <https://doi.org/10.24231/rici.2017.21.5.624> ☞ 국문: 윤기준, 전세

- 명, 정현수(2017).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양상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21(5), 624-634.
- Yoon, S. J. (2016). A qualitative study of innovative school teachers' experiences on instructional improvement through teacher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1), 217-241. ☞ 국문: 윤석주(2016).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사공동체를 통한 수업혁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1), 217-241.
- Yun, J., Jo, M. J., Ryu, K. H., & Kim, B. C. (2017).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 teacher learning community of Ha-neul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4(2), 27-56. <http://dx.doi.org/10.24211/tjkte.2017.34.2.27> ☞ 국문: 윤정, 조민지, 유경훈, 김병찬(2017). 하늘초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4(2), 27-56.